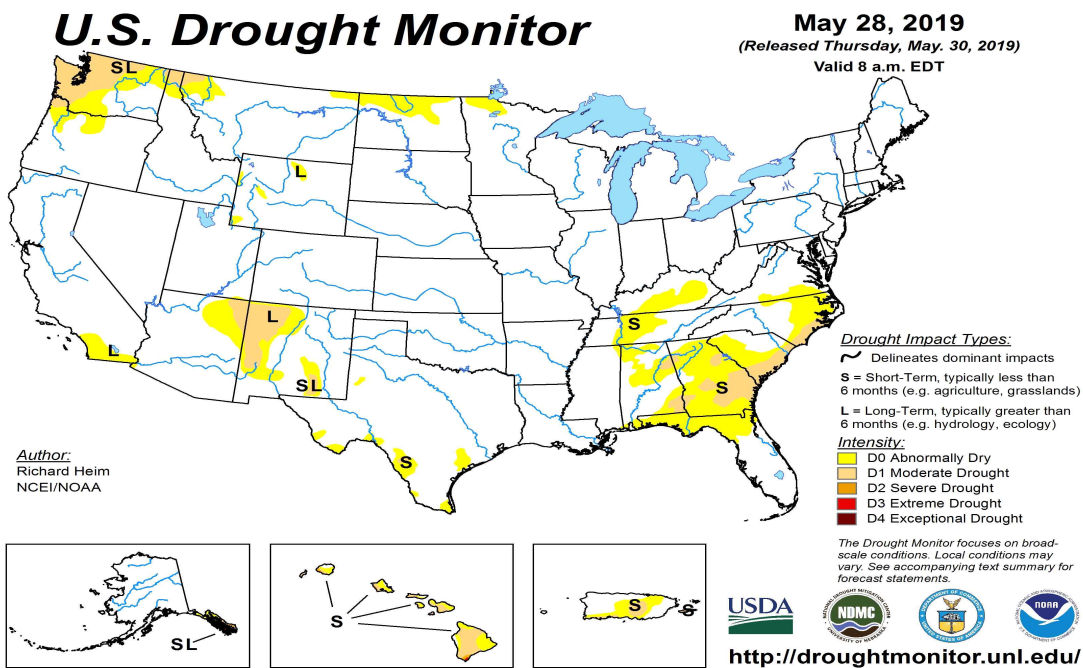


6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2)

□ 미국 기후 현황(5/26~6/1)

얼마 전 내린 강우로 발생한 빗물로 미시시피 강 수위는 199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아칸소 강은 동오클라호마를 지나서 서아칸소까지 수위가 기록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각각 1943년과 1945년의 최고 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동시에 그 주간의 많은 날 동안 태평양, 중서부, 북동부의 많은 구역에서는 소나기와 뇌우가 계속되어 찌무룩한 상태가 계속되었고 야외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파종 작업은 좀 더 건조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주 후반에는 몇 지역에서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 일부에서는 단기 가뭄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겨울 밀 성숙에는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옥수수과 다른 봄파종 작물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남대서양 주들에서는 기록적인 열로 건조 상태가 주는 악영향을 심화시켰다. 건조한 날씨는 태평양 최북단을 가로질러서도 세력이 강하여 주 후반에는 온난화 추세를 동반하였다. 북서부에서는 온기가 발달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어 작물의 발달이 느렸다. 서부의 많은 지역에 산발적이거나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렸고 고도가 높은 어떤 곳에는 눈도 내렸다. 남서부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온도는 정상보다 5-10° F 낮았지만 남동부와 태평양 북서부 일부에서는 정상보다 최소한 10° F 이상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5/27~6/2)

비는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조리, 네브라스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와이오밍 일부들에서 가장 심하게 내렸는데 어떤 지역은 4 인치 이상 내렸다. 오대호 아래쪽,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 남동부, 오하이오 계곡을 가로질러 정상보다 높은 온도가 눈에 띄었다. 남북 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버지니아를 가로질러 온도는 정상보다 최소한 6° F 이상 높았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와이오밍 일부에서는 정상보다 8° F 이상 낮았다.

## □ 세계 기후 현황(5/26~6/1)

■ 유럽: 유럽 대륙의 동쪽 절반에는 겨울 작물의 생식과 종실 비대에 유익한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지만 남서 유럽에서는 건조하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우세했다.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 전선이 남중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곳에 중간-심한 강우 (10-90 mm)를 내려주어 생식 (북부) 또는 종실비대(남부) 중인 겨울밀과 유채에게 수분 공급량을 올려주고 있다. 북유럽 나머지 지역에는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약하게 내린 소나기로 (2-12 mm) 생식-종실 비대 중인 겨울 작물의 수확량 전망은 계속 좋았다. 이에 반하여 이베리아 반도는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로 (정상보다 최대 7° C 높은 31-37° C) 겨울 곡물 성숙을 가속화했지만 늦게 발달하고 있는 밀과 보리의 수확량 전망은 다소 안 좋아졌다. 포르투갈, 스페인, 북해 인근의 북유럽 일부, 발트해 국가들에서는 정상보다 낮은 강우가 눈에 띄기는 했지만 유럽의 많은 곳은 지난 30일간 강우량이 정상 근처 또는 그 이상이어서 기상 조건이 겨울 작물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다.

■ 구소련(서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작물 발달이 가속화되었고, 최근에 내린 비가 추가적으로 내린 소나기와 뇌우와 겹치면서 지역 전반에 수량 전망은 좋게 유지되었다. 주간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3-6° C 높아서 낮 최고 온도가 30° C 였다 (지역적으로는 35° C). 더위가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시켰고, 한편 최근 습한 날씨로 토양 수분이 상승하여 생식-종실비대 중인 겨울밀의 열 내성을 증가시켰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서부와 남부의 수많은 주요 겨울밀 지대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고, 지역적으로는 강한 소나기와 뇌우가 있어서 (5-50 mm) 더운 날씨 때문에 늘어난 수분 수요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비는 대체로 중앙 우크라이나를 우회했는데 봄에 비가 많이 와서 (90일 강우량이 정상 또는 그 이상) 겨울밀의 생식은 진행 상태가 좋거나 우수하다. 이와 비슷하게 영양생장 중인 여름작물들의 전망은 열에도 불구하고 토양에 수분이 많고 초기 열-내성 발달 단계 중에 있어서 여전히 양호하다.

■ 동아시아: 주초에 북동중국에 내린 강한 소나기로 내린 강우량은 25-100 mm였는데,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지만 최고로 많이 내린 곳들에서는 밭이 침수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어서 건조한 날씨가 따라오면서 밭은 빠르게 배수되고 있다. 최근 내린 비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북동부 전역의 총 계절강우량은 정상 수치의 거의 두 배에 이르러 옥수수, 콩, 벼의 출현과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은 충분하다. 남중국에서는 거의 매일 소나기가 내려서



(25-100 mm, 최남단 지역들에서는 지역적으로 200 mm 이상) 생식 중인 조생벼와 영양생장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적당-풍부한 수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 농사철 시작에 필요한 총강수량은 대체로 작년보다 좋았으나 어떤 지역은 정상보다 약간 낮았다. 먼 북쪽 북중국 평원은 덥고 건조한 온도로 밀의 성숙을 촉진했다. 한반도는 남북한 경계를 따라 건조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는 비가 내려서 (10-50 mm) 수분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 전역에 소나기가 약하게 내렸다 (25 mm 이하)

■ 호주: 가뭄이 휩쓸고 있는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소나기가 너무 적게 와서 (대체로 1-3 mm) 최근에 심은 밀과 기타 겨울 작물에게 무시해도 좋을 만큼만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다. 아직 재배 초기이기는 하지만 건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겨울 작물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은 작년 수확량이 재난 수준이었던 기억 탓이 크다. 반면에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남부는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어서 (5-25 mm, 지역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겨울 작물의 상태를 끌어올렸다. 최근 내린 강우가 밀, 보리, 캐놀라의 발아와 출현을 촉진시켰지만 그 지역이 장기간의 가뭄에서 계속 회복되고 재배철 초기의 수확량 전망이 계속 유지되려면 상당한 양의 비가 추가로 내려야 할 것이다. 밀 벨트 내의 다른 지역들 중에서 서호주는 날씨가 건조하여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이 줄어들었다. 표토 수분 부족으로 초기의 작물 성장이 지체되었고 많은 곳에서는 파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밀, 보리, 캐놀라의 발달에 박차를 가하고 추가 파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비가 곧 와야 한다. 호주 서부와 남부는 평균 온도가 정상 근처였고 동부는 정상보다 최대 2°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지난 주 지역적으로 심한 비가 내린 후에 날씨가 건조해져서 여름작물 수확이 재개되었다. 거의 모든 주요 생산 지역은 10 mm 이하를 기록했고 대부분의 장소가 5 mm 이하로 보고되었다. 계절적으로 온화한 날씨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간 평균온도가 정상에서 1° C 이내)는 건조를 동반했고, 낮 최고온도는 중앙 생산 지역 (라 팜파, 부에노스 아이레스, 코르도바 인근 장소들, 산타 페, 엔트레 리오스)에서는 섭씨 10도 대 위쪽이었고, 먼 북쪽에서는 20도 대 중간에서 위쪽에 있었다. 밤 최저온도는 먼 남쪽과 북서 농업 지대에서 결빙 이하로 떨어졌지만 늦은 농사철이라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과 콩은 5월 30일 현재 각각 55%, 88% 수확되었고 밀 파종은 진척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 수준의 통계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 브라질: 남부의 핵심 생산 지역에 내린 소나기는 대체로 미성숙한 옥수수에 좋은 조건을 유지시켜주었다. ‘마토 그로소 도술’의 남쪽 구역과 ‘상 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총 25-50 mm의 비가 내렸는데 파라나와 산타 카타리나의 중앙 구역에 강한 비가 집중해서 내렸다 (100 mm 이상).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 밤 최저 온도는 10° C 이하로 떨어졌지만 온도는 결빙보다는 높게 유지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로 심은 옥수수는 5월 27일 현재 5% 수확되었고 나머지 90%가 종실 비대 또는

성숙 단계에 있다. 한편 밀은 65% 파종되었다. 반면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넓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낮 최고 온도가 지점에 따라 섭씨 30도 대 중반에서 상반에 도달하고 있음) 계속되었다. 계절적으로 건조한 조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역들에는 핵심적인 옥수수과 목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고이아스와 토칸티스를 지나서). 한편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의 사탕수수과 커피 지역은 계절적인 건조가 이른 수확에 유리한 것으로 보였다.